취임사

"量과 質을 동시에 伸張"하는 학회

學會長 金泰成

辛巳年의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健勝하심과 가정에 福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 면에서 能力도 부족하고, 德도 모자라는 제가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001년도 學會長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 무한한 榮光으로 여기면서, 동시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학회는 올해로 발족 된지 14주년을 맞고 있으며, 그 동안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전임 회장님들의 훌륭하신 지도와 자문 그리고 임원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의 德分에 이제 국내 굴지의 학회로 성장발전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영문논문지 복간, 학술진흥재단 인증 평가 실시, 제1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학회 재정의 확충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신 李準雄 전임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1세기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급변하는 환경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환경의 변화와 科學技術의 革新은 모든 변화를 선도하고 수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 선진 각국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자국의 경제비전을 知識基盤 經濟와 창의적인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부가가치의 원천이 지식과 정보이고, 교육과 연구개발이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학회는 국가의 지식기반 경제에 부응하기 위해 素材와 部品分野硏究에 더욱 매진하면서, 연구의 결과를 산업현장에 효과적으로 應用하는데 노력하는 등 학회의 사회적 책무에 가일층 충실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전기전자재료 분야 연구개발에 헌신하는 학회로 발전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학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合心 協力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第九代 學會長職을 맡으면서 금년 1년 동안 우리 전기전자재료학회를 「量과 質을 동시에 伸張」하는 학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량과 질의 동시 신장이란 基本方針을 성공리에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실천사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려고 합니다. 會員倍加運動을 전개하고, 우정어린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 어려운 경쟁사회에서 단결하고 친목을 도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미래지향적인 학술 연구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느 단체보다도 학회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학문적인 이론과 기술이 사회현장 보다 앞서가면서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사회에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학회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건전한 財政自立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학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會員과 財政입니다. 학회가 튼튼한 재정확보를 하려면 회원수를 증가시켜 재정적으로 자립해야겠습니다. 특히, 산학협동정신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애로기술을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산업현장에 제공하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넷째로 학회구조와 운영을 更新(Renewal)하고 改革(Reformation)하고자 합니다. 學會 長期發展計劃을 수립하고, 專門部門會, 專門硏究會, 및 各 地域의 支部등이 중심이 되어 부문별 역할 분담을 하고, 本部學會는 各 會의 調整機能을 수행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량과 질의 동시 신장이란 기본방침의 실천과 위의 4가지 세부실천사항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거듭나는 학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는 40여년간의 敎育과 硏究生活의 경험을 바탕으로, 左로나 右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자세와 항상 연구하면서 奉仕한다는 생각으로 학회장 직무를 성심성의 것 수행해 나가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합니다.

학회의 모든 계획의 실천과 운영은 회장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성취가 어려우며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금년 1년 내내 회원 여러분의 幸運과 健勝을 기원합니다.